

# #해시태그

해(解,답)가 없는  
시장을  
태연하게  
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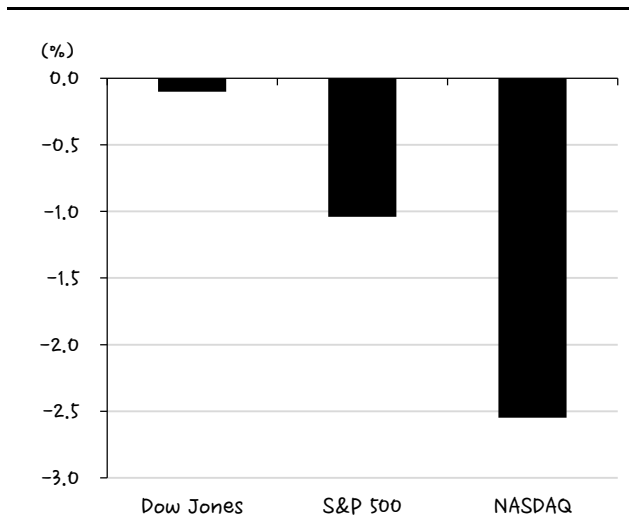


주식전략/시황. 한대훈 / 3773-8515, handaehoon@sk.co.kr

2021/0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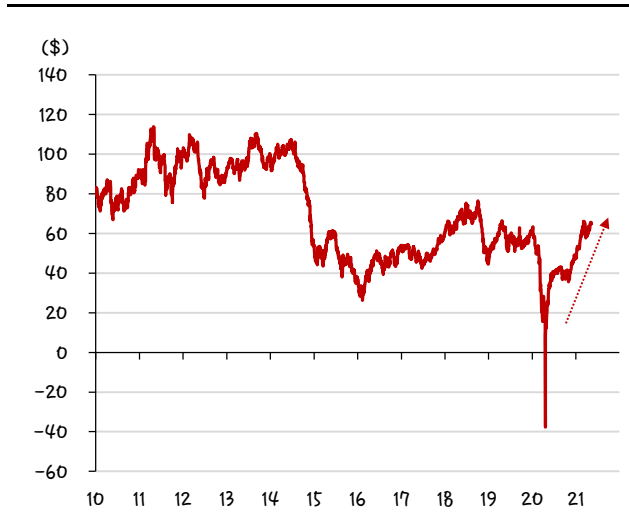
## 또 다시 -2% 넘게 하락한 나스닥

미국 주요지수의 일일 낙폭 비교



자료: Bloomberg, SK 증권

국제유가 추이



자료: REFINITIV, SK 증권

나스닥이 -2% 넘게 하락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4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하며 부진했고, 이에 따라 연준(Fed)의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증시가 반등한지 하루만이다.

나스닥의 하락 요인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①가격부담이다. 고용지표 부진으로 우려가 낮아졌지만, 연준이 긴축에 나설 경우 저금리의 수혜로 가파르게 상승한 성장주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②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작용했다.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 고조와 인프라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있다. 게다가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Colonial Pipeline)의 사이버 공격소식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점도 인플레이션을 높였다.

③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성장주에서 경기 민감주로의 로테이션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나스닥이 2% 넘게 하락했지만, 다우지수는 어제 장중 한때 35,000 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낙폭은 과도했다는 판단이다. 연준(Fed)이 이미 여러 차례 조기긴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고, 실제로 4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연준이 긴축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만큼 이번주 예정된 미국 4월 CPI 발표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5/12 예정)

한편,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Colonial Pipeline)의 사이버 공격소식은 향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새로 부각된 이슈다.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송유관 시설의 가동이 중단됐고, 이로 인한 유가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